

18. '98년도 政府 豫算案

◆ 교육개혁

GNP(국민총생산)의 5%를 교육재정에 투자한다는 공약에 따라 올해 보다 2조8천9백 억원이 늘어난 23조5천8백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중앙정부가 20조1천억원을 지원한다. 모자라는 부분은 교육세 10% 인상(5천억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1조원)발행으로 메운다.

<초·중등학교>

초등학교에 전면 급식을 실시한다. 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 총 7천억원이 투입된다. 초등학교의 2부제 수업(2백57개교)이 내년에 사라지고, 한반에 51명이 넘는 과밀학급(41개교 1천3백45실)도 줄어든다. 결혼가정이나 빈곤가정의 중고생 1만여명에게 1인당 2천5백원씩 점심값을 지원한다.

<대 학>

대학의 자구노력에 총 1천1백억원이 지원된다. 단 얼마나 효율적으로 경영하느냐에 따라 차등지원한다. 대학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국가 귀속 매장문화재를 보존정리하는 비용을 새로 책정, 18억원을 지원한다.

<직업교육>

전문대학의 자구노력을 지원하는데 3백억원이 지원된다. 오는 2001년 개교를 목표로

장애인들을 위한 국립 특수전문대학이 설립된다. 우선 내년에 설계비(7억원) 및 착공에 드는 비용(76억원)이 예산에 반영됐다.

〈세계화교육〉

오는 99년까지 초·중등학교 교사에게 1인당 한대씩 PC가 보급된다. 내년까지 초·중·고등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가 완전 전산화된다. 초등학교에 외국인 영어보조교사를 5백19명(올해는 4백명) 초청한다. 초등학교 4학년 담임교사 1만 6천3백37명을 대상으로 영어연수를 실시하는데 2백55억원이 책정됐다.

◆ 방위비

올해보다 6.2% 늘어난 총 15조2천4백억원이 배정됐다. 안보상황을 감안해 일반회계 증가율(4.1%) 보다는 높지만, 지난해 방위비 증가율(12.7%)에는 크게 못미친다.

1백55mm 신형 자주포독자개발사업도 추진된다. 내년부터 대학에 진학하는 하사관은 등록금을 전액 지원해준다. 직업군인들을 위해 6만7천9백25세대의 군숙소 건립계획도 마무리짓는다. 한미방위조약(SOFA)에 따라 한·미 방위비분담금이 올해보다 10% 늘어난 3천5백91억원이 책정됐다.

◆ 농어촌 구조개선

올해 보다 8% 늘어난 9조3천6백22억원을 투입, 24조원의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마무리한다.

65세 이상 고령농가가 전업농에게 농지를 팔거나 장기임대해줄 경우, ha당 2백68만원이 소득보조금으로 지급된다. 농기계를 반값으로 공급하는 제도는 올해로 마감하고 내년부터는 용자로 전환, 4천2백8억원을 지원한다.

농어민 후계자는 올해보다 다소 줄어든 9천3백48명을 선정하되 1인당 지원단가는 2천5백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늘린다. 쌀전업농(7천호)을 제외하고, 과수·화훼 전업농, 어업 전업농 등은 지원 대상을 1천2백명에서 1천7백54명으로 확대한다.

◆ 환경

올해 보다 15.6% 늘어난 2조5천1백억원이 배정됐다. 쓰레기소각장, 매립장, 음식물쓰레기처리 시설 등 지자체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을 확충하는 데 1천5백억원을 지원한다. 내년에 쓰레기 소각시설 1개소, 도시형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2개소를 새로 설치한다. 2천8백km의 노후 상수도관을 교체하고, 취정수 시설 91개소를 개량하는 등 상수도시설을 확충하는 데 8천4백억원을 투입한다. 낙동강수질개선, 연안 하수처리장 건설, 공단폐수 처리시설 등 수질개선에 1조1천억원을 들인다. 금강, 영산강 등 4대 강의 환경조사를 실시하는 데 새로 10억원을 배정하고, 이들 4대강에 환경감시대를 설치하는데 24억원을 지원한다.

◆ 사회복지

올해 보다 12.3% 늘어난 4조8천 59억원이 지원된다.

<생활보호대상자>

생활보호대상자에게 매달 지급하는 보조금이 최저 생계비의 93% 수준에서 내년에는 1백% 수준으로 확대된다. 거택보호자는 1인당 10만9천원에서 12만 7천원으로 생계비 지원이 오른다.

시설보호자는 8만1천원에서 8만7천원으로 오른다.

<노 인>

내년 7월부터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 35만명에게 매달 3만원씩 경로연금을 새로 지급한다. 기존의 생활보호대상 노인들에게는 80세이상일 경우 매달 5만원, 80 미만이면 매달 3만5천원씩 지급한다. 치매노인을 위한 6백평 규모의 치매 요양시설 1개를 신축, 총7개로 늘어난다.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기존에는 자활 2급 중복장애인까지로 제한 됐으나, 내년에는 자활2급 단독장애인까지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거택 1-2급, 자활 1-2급등 중증장애인 4만2천명에게 월 4만 5천원씩 수당이 지원된다.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

내년 7월부터 도시자영자 연금을 실시, 바야흐로 전국민 연금시대가 열린다. 농어민 1인당 월 2천2백원씩 보험료를 국고로 지원한다. 지역의료 보험의 급여기간이 연간 2백70일에서 3백일로 늘어난다.

〈국가유공자〉

기본연금이 월 45만원에서 48만원으로 인상된다. 6.25 전몰군경의 자녀중에서 저소득자에게 매달 10만원씩 생활 조정수당을 지급한다. 순직 군인에 대한 사망보상금이 월 보수액의 12배에서 36배로 대폭된다.

◆ 중소기업

거래기업의 어음이 부도날 경우 이를 보상해주는 어음보험기금이 올해 1백억원에서 내년에 1천억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벤처기업 지원예산도 올해의 1천1백90억원에서 내년에 2천94억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이 중 구로공단과 대전의 대덕지역연구단지에 벤처빌딩을 건립하는데 1백45억원이 쓰인다.

◆ 과학기술 및 정보화

올해보다 12.6% 증가한 3조9천2백31억원이 지원된다. 과학기술 연구개발(R & D)에 3조6백억원을 투자, 총예산대비 R & D지출 비율을 4.1%로 높인다. 산업기술자금이 올해 3천5백억원에서 내년에는 4천2백억원으로 늘어나고, G7 프로젝트에는 2천3백91억원

이 투자된다.

◆ 문화예술 및 체육

2002년 월드컵경기장을 짓기 위해 5백억원이 새로 배정됐다. 99년 강원 동계아시아,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에 대비, 관련시설을 짓는데 1천3백억원이 지원된다. 경기도 파주에 「만화의 집」을 짓는데 20억원을 지원한다.

◆ 외교·통일

국제기구 분담금이 올해 4백59억에 5백17억원으로 늘어난다. 개도국을 무상지원하는 규모도 올해 5백97억원에서 내년에는 6백80억원으로 늘어난다. 재외동포재단을 설립하는데 70억원을 들인다. 통일에 대비, 탈북주민 수용시설을 건립하는 재원으로 58억원을 책정했다.

예산 총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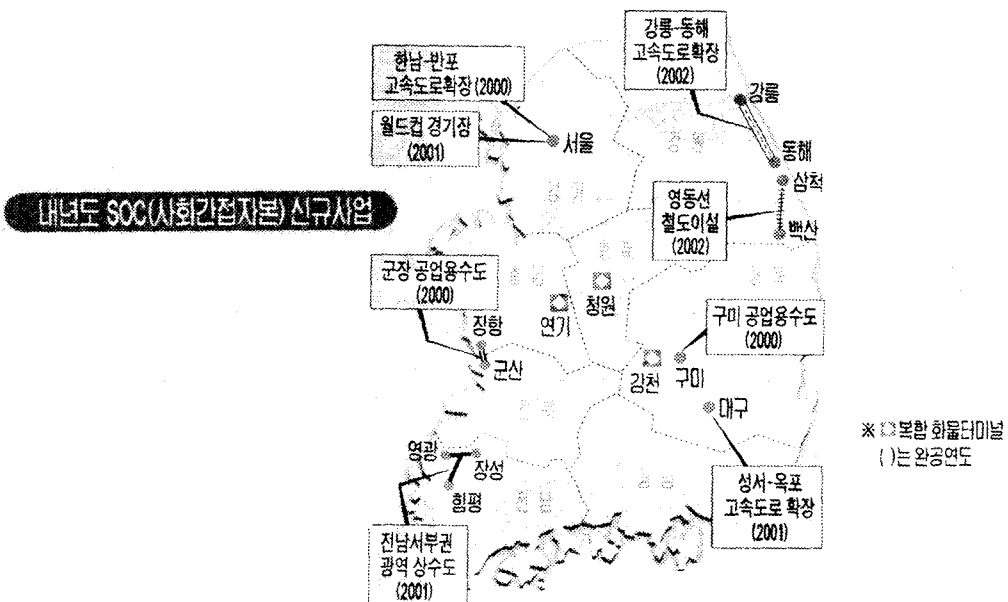
(단위 : 억원, %)

항 목	97년	98년	증감률
재정규모	714,006	755,603	5.8
▲일반회계	675,786	703,603	4.1
▲재정용자	38,220	52,000	36.1
세입	675,786	703,603	4.1
▲국세	640,335	676,632	5.7
▲세외수입	35,451	26,971	△23.9
세출	714,006	755,603	5.8
▲사업비	305,220	312,997	2.5
▲고정경비	370,324	390,606	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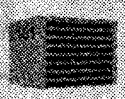

내년 예산 어디에 쓰이나

(단위 : 억원, %)

사 업	97년	98년	증감률
교육개혁	182,876	197,782	8.2
사회간접자본건설	101,301	112,242	10.8
농어촌구조개선	86,718	93,622	8.0
사회복지지원	42,809	48,059	12.3
과학기술·정보화	34,832	39,231	12.6
재해예방·국민생활안정	29,428	32,612	10.8
중소기업경쟁력강화	28,466	32,150	12.9
환경개선	21,739	25,135	15.6
지역균형개발	8,649	9,250	7.0
주택건설지원	7,348	7,040	△4.2
문화예술-체육진흥	5,619	6,927	23.3
외교-통일분야	4,321	4,271	△1.2



달라질 내년도 삶의 질

	97년(전망)	98년(예상)		97년(전망)	98년(예상)
주택 보급률 	91.5%	93.6	지하철 운송 부담률 	35.5% 서울 부산 9.1	36 서울 부산 15
전화 보급대수 	1백명당 44.7대	47.2	공항 여객처리 능력 	연간 7,689만명	8,400
1인당 하루 상수도 급수량 	414ℓ	421	철도길이 	6,559km	6,718
국도길이 	22,761km	23,981	국민연금 가입자수 	7,895천명	16,801
고속도로길이 	8,416km	8,911	초등학교 하급당 학생수 	35.1명	33.6
지방도 포장률 	78%	80	중등교원 1인당 학생수 	22.3명	21.8

주택회보